

# 빨라지는 통합 시계… 민주당, 행정통합 특위 구성

## 이 대통령, 광주·전남 행정통합 전폭 지원 약속

### 16일 행정통합 특별법안 발의…내달 본회의 통과 목표 시·도의회 의결로 가닥…27개 시·군·구 순회 설명회도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 의사를 밝히면서 통합 추진이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특별법 제정과 공문화 절차를 병행하며 통합 일정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11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청와대에서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를 만나 행정통합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대통령은 제정과 공공기관 이전, 산업 지원과 각종 특례를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의 지원 의지가 확인되면서 양시·도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광주·전남은 지

난 5일 행정통합추진기획단을 출범시킨 데 이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행정통합 추진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 협의체는 통합지방정부 출범 전까지 운영되며 통합 방향과 특별법에 담긴 내용을 정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추진협의체는 전남 경제부지사와 광주 문화경제부지사가 공동대표를 맡고, 시장·군수협의회와 시·도의회, 경제계, 교육계, 시민단체, 대학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꾸려진다. 통합 과정에서 제기되는 쟁점과 의견을 정리해 제도 설계에 반영하는 것이 목표다.

이와 함께 이달 중순에는 광주·전남 기관장 등 300~400명 규모의 ‘범시민인 행정통합 추진협의회’도 출범할 예정이다.

이 기구는 행정통합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지역 여론을 모으는 데 주력한다.

행정통합의 핵심인 특별법 제정도 구체적인 일정이 잡히고 있다.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에 통합 지원을 위한 당내 특위 구성을 요청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무총리 주도로 통합 지원 특례 대응을 마련해 15일쯤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15일 공청회를 연 뒤 광주·전남 통합 지원 특별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후 17일 열리는 국회 임시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심사가 이뤄지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월 초 본회의에 상정하는 일정이 거론된다. 목표대로라면 특별법은 늦어도 2월 말 공포될 가능성이

크다.

특별법에는 통합 지자체에 대한 재정·행정 권한 확대와 함께 투자심사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대형 사업 추진에 필요한 특례 조항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통합 이후 재정 규모가 커지고, 광역 행정 권한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과 산업 유치 구상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통합 이후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이 추진될 경우 일부 공공기관을 광주 전남혁신도시로 옮기는 방안이 거론된다. 제생에너지 기반 국가산단 조성과 첨단 산업 유치 구상도 통합 논의와 맞물려 제시되고 있다.

통합 확정을 위한 절차를 두고는 의견이

갈린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특별법이 마련되면 시·도의회 동의나 주민투표를 검토할 계획이다. 현재로서는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큰 주민투표보다는 광역의회 의결로 추진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통합에 따른 갈등을 줄이기 위해 주민투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양시·도는 온라인 소통 창구 운영과 27개 시·군·구 순회 설명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통합 속도가 빨라진 만큼, 지역사회 공감대를 얼마나 넓힐 수 있을지가 앞으로의 과제가 될 전망이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 이대통령, 13~14일 일본 나라현 방문

### 한일정상 ‘서툼외교’ 지속 중일 갈등 속 관련 논의 주목

이재명 대통령 (사진) 이 13~14일 일본 나라현을 방문한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초청에 따라 1박 2일 방일 일정을 소화한다”고 전했다.

나라현은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다.

이 대통령은 13일 오후 나라현에 도착해 다카이치 총리와 정상회담 및 만찬을 할 예정이다. 취임 후 다섯 번째이자,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가 사퇴하고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한 이후로는 두 번째 한일 정상회담이다.

지난해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



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후 약 두 달 만에 이뤄지는 다카이치 총리와의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지역 및 국제 현안과, 경제·사회·문화 등 민생에 직

결된 다양한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특히 최근 중국과 일본 간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일 정상이 이와 관련해 어떤 대화를 나눌 것인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방일 이틀 차인 14일에는 다카이치 총리와의 친교 행사, 동포 간담회 등을 소화한 뒤 귀국할 예정이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1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신인 원내대표로 당선된 한병도 의원 (가운데) 이 정청래 대표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민

## 민주 새 원내대표에 전북 3선 한병도 선출

### 임기 5월까지 3개월…결선투표서 백혜련 눌러

### 새 최고위원에 강득구·이성운·문정복 3명 선출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에 한병도 의원(3선·전북 익산)이 11일 선출됐다. 강득구(재선)·이성운(초선)·문정복(재선) 의원은 새 최고위원에 뽑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1차 투표(의원 투표 80%·권리당원 투표 20%) 결과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결선투표를 치른 결과 한병도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결선투표에서 백혜련 의원(3선·경기 수원)을 누르고 이재명 정부 집권여당의 두 번째 원내대표 자리에 올랐다. 진성준(3선·서울 강서) 의원과 박정(3선·경기 파주) 의원은 1차 투표에서 탈락했다. 신임 한 원내대표 임기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잔여 임기인 5월까지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투표에 앞선 정견

발표에서 “다가오는 (15일) 본회의에서 2차 종합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며 “이후에도 전광석화처럼 민생 개혁 법안을 밀어붙여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단단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당정청 내부 소통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이것은 최소화하고, 합의된 결론이 발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득구·이성운·문정복 의원은 이날 권리당원 투표 50%, 중앙위원 50% 투표를 합산한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 새로운 최고위원에 선출됐다.

선거 결과 강득구 의원이 최종 득표율 30.74%로 가장 많은 표를 얻었고, 이어 이

성운 의원이 24.72%, 문정복 의원이 23.95%의 득표율로 최고위원에 선출됐다. 이경태 의원은 최종 득표율 20.59%로 4위로 밀려나 탈락했다.

당권과 대 비당권과 대결로 주목받은 이번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 비당권파(강득구)보다 정청래 대표 측 인사(이성운·문정복)가 더 많이 지도부에 편입되면서 ‘정청래 체제’ 안정성이 어느 정도 담보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 대표는 이날 결과 발표에 앞선 후보자 합동 연설회에 참석해 후보자들을 한 명씩 소개하면서 “오늘만큼은 내편 내편 따지지 말고 박수를 보내달라”고 말했다.

새 최고위원들의 임기는 올해 8월까지다. 이들은 앞서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최고위원 3명의 자리를 대신하게 됐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 ‘채상병 사건 외압 저항’ 박정훈 대령, 준장 진급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채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하고 외압에 저항했던 박정훈 대령이 준장으로 진급했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최근 박 대령의 준장 진급을 포함한 소장 이하 장성급 장교 인사를 발표했다.

박 준장은 국방조사본부장 대리로 보직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번에 육군준장 박민영 등 27명, 해군준장 고승범 등 7명, 해병준장 박성순, 공군준장 김용재 등 6명 등 총 41명을 소장으로 진급시켜 주요전투부대 지휘관 및 각 군 본부 참모 직위에 임명한다.

또 육군대령 민규덕 등 53명, 해군대령 박길선 등 10명, 해병대령 현우식 등 3명, 공군대령 김태현 등 11명 등 총 77명을 준장으로 진급시켜 주요 직위에 임명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구형 내일 재개

### 결심공판 15시간 만에 종료…재판부 “다음엔 무조건 마무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13일 재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괴연부장판사)는 지난 9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관련 8명에 대한 결심 재판 절차를 진행했지만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측 서류증거(서증) 조사 단계에서 시간이 지체되며 자정을 넘기자 추가 기일을 지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이날 오전 9시 20분께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김 전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을 비롯한 군·경 수뇌부 7명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

의 사건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과 노상일 전 국군정보비서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복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주요 피고인 8명이 전원 범정에 출석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측에서는 박역수 특검보를 비롯해 8명이 자리했다.

최종변론, 특검 측 최종변론과 구형, 피고인 최후진술을 순차적으로 진행해 재판을 마치고 선고일을 지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서증조사 첫 순서로 나온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이 점심과 휴정 시간을 포함해 10시간 30분 가까운 시간을 쓰면서 재판 진도가 나아가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후 5시 40분께 김 전 장관 변

호인단의 변론을 중단시키고 조 전 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원대 전 국회경비대장 측 서증조사를 마친 후 김 전 장관 측 서증조사를 재개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는 무조건 끝낸다. 다른 옵션은 없다”고 못 박았다.

이후 노상일 전 국군정보비서관과 김용현 전 제3야전군(3군) 사령부 헌병대장(대령) 측 서증조사를 마치고 재판 시작 약 15시간 만인 10일 0시 11분께 공판을 종료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서증조사와 변론, 피고인 8명 전원에 대한 특검팀의 최종변론과 구형, 피고인 최후진술은 13일 공판을 한 차례 더 열어 진행하기로 했다.

13일 추가 지정된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서증조사에 이어 특검팀 최종 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종변론과 최종 진술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연합뉴스

## ‘판다 외교’로 떠오른 광주 우치동물원 강기정 시장, 입식 환경 등 직접 살폈다

### 전국 2곳뿐 국가거점동물원 2년연속 동물복지 우수기관 “국제교류 아우르는 새도약”

한중 정상회담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 중국 측에 판다 추가 입식을 요청한 것과 관련, 광주시가 우치동물원의 사육환경 등 긴급 점검에 나섰다.

11일 광주시에 따르면 강기정 시장은 전날 국가 거점동물원인 우치동물원을 찾아 ‘자이언트 판다 입식’과 관련한 현장 여건을 살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주제로 열린 시도지사·지역 국회의원 간담회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광주 우치동물원에 판다 한 쌍을 대여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기정 시장은 이날 점검에서 동물원 운영 현황과 전문 인력 구성, 생태동물원 시설 개선 추진 상황, 판다 사육시설 설치 가능 후보지 2곳을 꼼꼼히 살피었다.

광주시는 판다 입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지만, 판다 입식이 실제 추진될 경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동물복지와 보전 체계가 전제돼야 한다는 원칙 아래 신중한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

우치동물원은 전국 2곳뿐인 국가 거점동물원 가운데 하나로, 지난해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진료 분야 전문성을 인정받아 지정됐다. 지정 이후 광주 실내동물원은 물론 제주·여수·해남 등 의료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 동물에 대한 전문 진료를 수행하며 공공적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또 야생동물구조센터를 통해 구조됐으나 장애 등으로 자연 복구가 어려운 삼과



불법 밀수된 멸종위기종 동물들을 보호·관리하며, 국가 거점동물원으로서의 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우치동물원은 동물복지 국회포럼이 주최한 ‘2025년 제7회 대한민국 동물복지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우치동물원은 판다와 같은 곰과 동물인 반달가슴곰에 대한 사육·진료 경험도 보유하고 있다. 불법 옹달 채취용 사육곰 농가에서 구조된 반달가슴곰 4마리를 관리하고 있으며, 인공요육을 통해 성장한 개체에 대한 건강 관리와 노령 곰 질병 치료 경험도 축적해 왔다.

강 시장은 “판다 입식은 관광 활성화와 국제교류를 아우르는 우치동물원의 새로운 도약이 될 것”이라며 “우치동물원이 국가 거점동물원으로서 축적해 온 진료와 종보전 역량을 바탕으로, 동물복지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면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 본사인사

△이훈기 씨 이사 (목포·무안·신안지역 기자)

△송원근 씨 이사 (여수지역기자)

△조함춘 씨 이사대우 (나주지역기자)

(2026년 1월12일자)